

패션 디자인에서 색채 비례에 의한 배색 연구

문 영 애

부천대학 의상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Color Coordination of Fashion Design by Color Proportion

Young-Ae Moon

Prof., Dept. of Clothing Design, Bucheon University
(2009. 3. 3. 접수; 2009. 4. 16. 수정; 2009. 4. 24.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armonious color schemes based on a length proportion of upper and lower parts of a body by; understanding of the harmonious length proportion of a square measure of a color in color coordination of fashion design, and presenting a mutual relation of the length proportion of a square measure of a color according to the various way of color schemes and proportions.

For this study, monochromatic scheme, analogous scheme and complementary scheme were adapted as the color schemes, and each color scheme was coordinated by analogous tone and contrast tone. Also, 1:1 symmetry proportion, 1:2 harmonic proportion, 1:1.618 golden section, 1:3 and 1:5 contrast proportion were used as the square measure of a color.

For the survey, 12 sets of color sample were organized. The survey was conducted 182 of university students majored in fashion design, and 143 responded samples were analyzed using SPSS 12.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1:5 contrast proportion is most inharmonious in general, and 1:1 symmetry proportion is followed. It is thought that too much or same length of the square measure of colors has less attractive effect of coloring. On the other hand, 1:1.618 golden section and 1:2 harmonic proportion are accepted to be harmonious in all color schemes. The length proportion of the square measure of a color had more influence on harmony of color coordination in fashion design rather than color schemes.

Though, on the assumption that people have a similar perception about the color image of fashion design, i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strengthening or diminution of color in cloth if the coloring effect of the length proportion of the square measure of a color is used in fashion design and wearing of clothes.

Key Words: Color coordination(배색), Clothing design(복식 조형), Color scheme(배색 방법), Harmony(조화), Proportion of square measure of color(색면 비례)

Corresponding author ; Young-Ae Moon

Tel. +82-10-5717-7956, Fax. +82-32-610-3398

E-mail : ksm@bc.ac.kr

I. 서론

현대 산업사회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소비 제품의 경쟁력은 성능이었으나 경제적 측면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제품의 기능과 성능은 제품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특성이 되었다. 이제 제품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차별화 되어야하고 그 차별화의 수단으로써 색채를 가장 효과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산업의 모든 제품에서 색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비주얼 이미지는 제품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패션제품의 색채에서 복식에 표현된 색채는 복식의 형태와 함께 복식을 구체화하며 복식의 비주얼 이미지를 완성하는데 그 핵심이 된다. 또한 시각적 요소으로써 복식의 색채는 재질보다 즉각적이고 감성적인 면이 강하여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인간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매체가 된다. 이것은 한 개인이 색을 볼 때 지각을 통하여 생리 감각적으로 색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경험과 감성에 의하여 통합적인 색채의 이미지로 색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된 색채가 단색인 경우보다 배색이 되어 있을 때 시각적 이미지의 효과가 섬세해지고 다양해진다.

복식디자인의 색채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와의 상호 적합성, 조형적 의도와 색의 적합성, 전체와 부분에 대한 배색효과를 고려하여 사용하였을 때 조화로운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배색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연구가 필요하며 색채이미지 및 색의 조화와 배색에 대한 연구는 유행색의 경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복식조형의 배색은 의복의 형태에 따른 면적비례를 생각하여야 되며, 실질적으로 색채를 적용할 때 인체의 상하관계에 따른 부위별 위치에 의한 길이의 비례로 배색하게 된다.

본 연구는 복식디자인의 색채 사용에서 2가지 색을 사용한 배색의 경우 여러 가지 색면 길이의 비례에 의한 배색을 통하여 복식디자인의 색채에 의한 조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복식디자인의 배색에서 색면

길이의 비례에 따른 배색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사용된 색의 전체와 부분에 대한 조화로운 색면 길이의 비례를 파악하고 둘째, 배색 방법의 종류와 다양한 비례에 따른 색면 길이 비례의 상호관련성을 제시하여 복식디자인의 인체의 상하 위치의 길이에 따른 조화로운 배색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배색

한 가지 색으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서로 어울리게 사용하는 것이 배색이다. 배색은 어떤 특별한 목적과 기능에 합치된 미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색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다양한 요소를 통일성 있게 함으로써 완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색채조화는 두 색 또는 그 이상의 색들이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파생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며 색이 잘 어울려서 심리적으로 아름다운 색감을 느끼게 하는 배색이 색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두 가지 색 이상이 공존하여 만드는 질서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평형감을 느낄 때 이상적으로 본다. 색 자체가 의미를 지닌 색채가 되기 위해서는 배색 조화에 대한 조형적 원리에 따라 미적 배색이 이루어져야 한다.¹⁾

아른하임은 색채조화를 음악에 비유하여 화음과 불협화음의 원리를 기초로 색채조화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는 음악에 있어 고전적으로 불협화음이라 간주하였던 화음이 20세기에 들어 오면서 화음의 개념으로 되었음을 지적하고 색의 배색에서도 조화와 부조화 사이에는 명백한 경계선이 없으며, 개인의 경험과 취향에 따라 불협화음으로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배색에서 화음의 조화가 전형적인 안정감과 질서감을 만들어 내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불협화음에 의한 조화를 시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감성으로 경이로움, 변칙적인 놀라움, 신비함 등을 표현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은 미술가 또는 디자이너가 스스로 탐구해야 한다고

하였다.²⁾

조주연(2005)³⁾은 패션디자인의 색채계획 과정에서 단색 이미지에 의한 상의의 색채를 결정한 후에 하의의 배색에서 색차의 속성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이미지 배색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배색을 색공간의 3속성에 의하여 분석할 때 색차가 큰 범위의 배색일수록 뚜렷한 특성이 나타나며 형용사 이미지에 따라 특징적인 색차 요소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패션색채는 시간적 공간적 범주와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며 이에 따른 감성이미지도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어떠한 형태의 배색시스템도 영구불변 할 수 없다고 하였다.⁴⁾

배색의 방법은 크게 색상환에 의한 색상배색, 색의 삼속성과 상호작용을 이용한 배색, 색조에 의한 배색이 있다. (1) 색상환에 의한 배색은 한 평면을 이루는 색상환에서 색과 색의 각도에 따라 배색하는 방법으로써 색상 배색은 색상의 변화를 주제로 하는 배색방법으로 동일색상배색(monochromatic scheme), 유사색상배색(analogous scheme), 중간차 색상배색(intermediate scheme), 보색배색(complementary scheme) 등이 있다. (2) 색의 삼속성과 상호작용을 이용한 배색으로는 주조배색, 강조배색, 분리배색, 변조배색이 있으며 주조배색은 조합시키는 각 색에 공통요소를 부여하여 그 요소에 의해서 통일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배색이다. 강조배색은 배색의 일부에 액센트가 되는 색을 조합해 강조색을 중심으로 배색하는 방법이며, 분리배색은 서로 비슷한 두 가지 색 사이에 뚜렷이 구분되어지는 색을 첨가하여 두 색을 분리하고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배색이다.⁵⁾ 변조 배색은 여러 가지 색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변화시켜가는 배색으로 그라데이션(Gradation)효과를 이용한 배색으로 색과 색끼리의 배열 방법을 주제로 하는 리듬감 있는 배색 방법이며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색을 배열하여 보는 사람에게 리듬감이 있는 움직임 주며 시선을 일정방향으로 유인하는 특징이 있다. (3) 색조에 의한 배색은 색조의 명암과 농담을 주제로 하는 배색방법으로 동일색조배색, 유사색조배색, 대조색조배색이 있으며 색조에 의한 배색은 색상의 범위를 동일 또는 유사색상으

로 색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적은 수의 색상을 사용하면서 색조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⁶⁾

2. 복식 디자인과 배색

복식디자인에서 유행색의 경향, 인체의 비례, 조형의 균형은 어떤 시기에는 객관성을 지니지만 보편성을 갖지는 않는다. 객관성은 정확성을 추구하며 현상 위에서 논의되고 실증 과학에 의해 파악되지만 보편성은 본질을 추구하여야 한다. 복식에서의 미는 복식의 모든 현상을 확인하면서도 복식미의 보편적 원리를 획득하여야 한다.⁷⁾ 복식디자인에 있어서 색채는 중요한 요소로서 의복의 색채는 착용자의 기호, 개성, 심미안, 문화적 배경 등 여러 가지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복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색채의 조화는 필수적이며 예술적인 순수한 아름다움으로서 착용자, 용도, 소재 및 사회 환경과의 조화 등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⁸⁾ 복식디자인에 사용될 색채를 계획할 경우 색상, 명도, 채도의 결정 이외에 각 색채의 양과 위치, 배색에 의한 색의 조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⁹⁾

색채가 조화롭게 잘 사용이 되었을 경우 모든 복식디자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디자인 요소가 되며, 특히 복식의 색채는 개인의 신체색인 머리, 피부, 눈, 입술 색들과 결합되어 한 개인의 독특한 색채 반응으로 나타난다.¹⁰⁾ 그러므로 복식디자인에 있어 성공적인 색채의 사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색채의 이론들과 효과들을 알아야 하며, 색채의 반응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반적인 반응을 디자인 과정에서 찾아내어 사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반응을 유발시키기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색상을 입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색상이 신체 색을 돋보이게 하는 명도와 채도로 이루어졌으며, 목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알맞은 위치에서 적당한 양의 색채가 사용되었을 때 가능하다. 복식디자인에 배색된 색채는 의복의 형태에 따른 면적의 비례를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의 색채조형에서는 인체의 상하

관계에 따른 부위별 위치에 의한 길이의 비례로 배색된다. 이것은 목, 가슴, 배, 허리, 팔, 다리 등의 신체모양과 운동이 의복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가 때문이며 색면 길이의 비례에 의한 착시현상을 사용하면 신체상의 결점도 다소 보완할 수 있다. 색조와 명도의 차이는 색면의 비례 요소를 강조하며, 어둡고 짙은색 하의에 밝고 부드러운 색의 상의를 입을 경우 시선을 아래에서 위로 이끌어 얼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색채의 대비가 없는 의복은 색면 비례의 미묘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부드럽고 중간 채도를 지닌 색들끼리 또는 어두운 색들끼리의 배색은 밝은 색들끼리의 배색보다도 키가 작아 보이게 한다.¹¹⁾

색채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색채를 보고 느낄 때는 어떤 물체의 색을 보는 것이며 물체는 색채뿐만 아니라 형태와 재료의 특성을 함께 지닌다. 색채가 불러일으키는 느낌은 색채의 이미지로 전달되며, 색채와 형태, 색채와 질감, 색채와 공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색 지각은 일반적인 지각과정과 같이 심리적인 구조를 통해 인지하게 되는 정보화 과정을 거치며, 각각의 분리된 감각의 축적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화된 전체로 지각한다는 형태주의 이론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복식을 통해 색이 정보로 제공된다면, 지각자는 지각정보인 색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되고 그 복식의 착용자에 대한 복식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때 지각자는 각각의 색에 따라 착용자의 이미지를 다르게 지각할 것이며,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닌 두 색이 조합되었을 경우에는 각각의 단색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로 지각하고 조합된 색은 전체로 조직화되어 지각된다.¹²⁾ 따라서 복식디자인의 배색이미지를 생각할 때 색상과 명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색조에 의한 배색방법이 적합하며 색조에 의한 배색을 함으로써 복식디자인에서 전체적인 통일감을 줄 수 있다.¹³⁾

3. 복식 디자인과 비례

비례(proportion)는 “정량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조형원리”로서 수적인 질서를 의미하며, 비례는

거리, 크기, 양, 정도 또는 부분들 사이의 상대적인 관련성의 결과로 생기는 원리이다. 비례는 네 가지 수준에 의거하여 작용하며, (1) 부분 내 (2) 부분 사이 (3)전체에 대한 부분 (4) 환경에 대한 전체이다.¹⁴⁾ 복식의 비례들은 기능적인 작용목적과 운동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복식의 비례는 신체가 지닌 본래의 분할을 따를 때 가장 매력적이고 기능적이게 된다. 비례는 모든 요소에 적용 가능하고 형과 형태는 언제나 자체적으로 비례를 지니고 있다. 비례는 모든 선의 원리 및 강조의 원리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구조적 또는 장식적으로 다른 통합의 원리 등에 기여할 수 있다.¹⁵⁾ 비례의 원리에 관한 이론 중 황금분할은 고대로부터 형태미를 연구·규정하는 여러 비례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비례로 여겨왔다. 이는 주어진 대상을 1:1.618의 비율로 할당하는 방법으로 보통 3:5 또는 5:8의 비율로도 나타낸다. 이러한 예로는 인체비례의 이상형이 허리선을 중심으로 하여 상부와 하부의 비례를 5:3으로 분할하였을 때 8등신이 되고 동시에 황금분할에 해당되므로 미적 체형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인체를 비롯한 자연계의 생명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황금분할은 생동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동적균제라고도 하며 가장 이상적인 비례로 인식되어 왔다.¹⁶⁾ 복식조형에 있어서 길이를 분할할 때 사용하는 황금분할의 원리는 대략적이어서 긴 부분의 전체 길이는 1/2이상이고 2/3이하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 밖에도 그리이스 비례인 1:1.414 등 많은 수치가 제시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1:1의 간명한 대칭비례는 세련된 감각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항상 상관관계에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¹⁷⁾

플라톤(Platon)은 1, 2, 3, 4에 8, 9, 27을 첨가한 7개의 숫자로서 대우주와 소우주(인간, 자아)의 비밀스런 리듬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여 사각형과 정육면체의 기하학을 통하여 얻어진 1, 2, 4, 8과 1, 3, 9, 27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열해 놓고 이 숫자들이 서로 어울려 형성하는 비율들은 지상 음악의 모든 음정(음과 음 사이)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 천체의 음악과 영혼의 구성까지도 포괄한다고 믿었다.¹⁸⁾

음악비례 중 협화음의 비례만을 건축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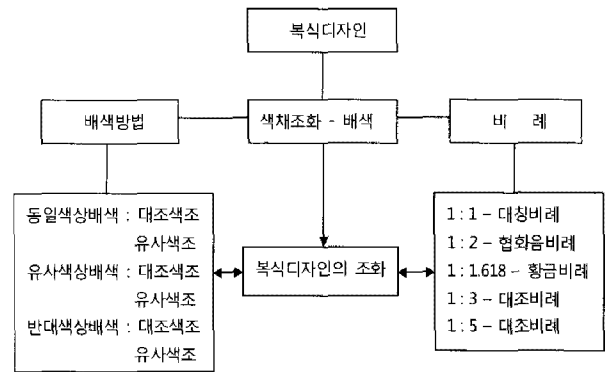
함으로써 귀를 통한 조화와 눈의 조화를 동일하게 생각하였으며 음악의 협화음에서 나타나는 1:2, 2:3, 3:4 등의 소정수 비례를 건축의 평면이나 입면 등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세의 음악은 음악 속에 내재하는 비례의 수학적, 우주적 관계 때문에 천문학, 산술학, 기하학과 더불어 사학을 이룰 만큼 지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어거스틴은 아름다움이란 비례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한다는 공감각적 통일을 주창하였다. 그는 비례를 시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 응용하고 또한 음악용어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1:2의 옥타브 비례는 1+2=3, 즉 3위일체의 수가 될 뿐만 아니라 1과 2, 3의 세 숫자는 각각 더하거나(1+2+3=6) 곱하더라도(1×2×3=6) 완전한 수 6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다.¹⁹⁾

일본비는 단순한 정수로 만들어진 비율로 1, 3, 5, 7, 9 ... 등차급수에 따라서 만들어진 비례이다. 이것은 정수를 가산하고 만들기 때문에 최초의 단계에서는 점진비(漸進比)가 극히 커지고 수치가 커지게 되면 점진비가 작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당한 기준으로 될 수치의 선택에 따라서 비례의 조절이 가능 가능한 편리함이 있으며 또한 소수점 이하를 버리기 때문에 계산이 쉬운 이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일본비는 일본의 건축이나 미술 등의 장르에 사용되어 왔다.²⁰⁾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복식디자인의 조화로운 배색을 위하여 색채조화와 배색, 비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복식디자인의 배색에서 두 가지 색을 사용하였을 경우 여러 가지 배색 방법과 색면 길이의 비례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배색에 의한 조화를 연구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배색을 위하여 색채 사용 시 색상은 먼셀 색 체계 10색상 R(Red), YR(Yellow Red), Y(Yellow), GY(Green Yellow), G(Green), BG(Blue Green), B(Blue), PB(Purple Blue) P(Purple), RP(Red Purple) 과 40색상을 사용하였으며 색조의 특성은 PCCS (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 색조분류에 의거하여 p(pale), ltg(light grayish), g(grayish), dkg(dark grayish), lt(light), sf(soft), d(dull), dk(dark), b(bright), s(strong) dp(deep), v(vivid)의 12색조와 무채색의 W(White), ltGy(light Gray), Gy(Gray), dkGy(dark Gray), Bk(Black)를 사용하였다. 색채샘플은 각 배색방법마다 5종류의 비례에 따라 색상지를 사용하여 60개를 만들었으며, 각 배색방법은 비례에 따른 5개의 색채샘플을 1set로 하여 짙은 색을 위에 배색한 경우와 옅은 색을 위에 배색한 경우로 하여 중간회색바탕의 폼보드(foam board)에 붙여서 설문 조사도구로 만들었다. 색채샘플에 사용된 색상지는 일본 색연산업연구소의 “신배색 카드 199b”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패션디자인 전공 대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계에 사용된 응답은 143명이었다. 응답자는 각각의 제작된 색채샘플을 직접 보면서 각각의 배색 색채샘플 set마다 가장 조화롭게 느끼는 순서대로 쓰게 하고 가장 높은 순위 별로 5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SPSS 12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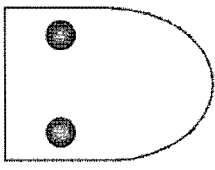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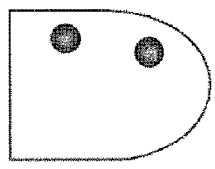
복식디자인의 배색은 배색이 전달하는 이미지가 중요하며 이를 고려할 때 색상과 색조를 고려한 배색이 효과적이라 볼 수 있고, 색상과 색조에 의한 배색은 복식디자인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배색방법을 색상과 색조의 배열로 하였으며, 색상에 의한 배색방법은 동일색상, 유사색상, 반대색상 배색으로 하고 각각의 색상배색은 유사색조와 반대

색조로 다양한 색면 길이의 비례에 의하여 배색하였다.

1. 동일색상 배색과 색면 길이의 비례

동일색상 배색은 동일한 색상의 범위에서 명도와 채도를 달리하여 배색하는 것으로 <표 1>은 본 연구에 사용 한 배색샘플이며 각각의 배색에서 응답자가 조화롭게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동일색상 배색 색채샘플

				비례				
				1:1	1:2	1:1.618	1:3	1:5
동일 색상	대조 색조	Y(dk8):5Y 4.0/5.5 Y(p8):5Y 9.0/3.0 	A					
			B					
	유사 색조	B(p18):3PB 7.5/3.0 B(b18):3PB 5.0/10.0 	A					
			B					

<표 2> 동일색상-색조의 색면 길이의 비례에 따른 배색에 대한 조화

(N=143)

			비례									
			1:1		1:2		1:1.618		1:3		1:5	
색상	색조		M	SD	M	SD	M	SD	M	SD	M	SD
동일 색상	대조 색조	A	2.88	1.34	3.68	1.03	3.94	1.18	2.66	1.08	1.84	1.35
		B	2.57	1.44	3.81	0.95	3.52	1.14	3.13	1.31	1.97	1.37
	유사 색조	A	2.77	1.42	3.96	2.52	3.85	1.13	2.85	1.20	1.77	1.13
		B	3.19	1.24	3.69	1.20	3.92	1.04	2.36	1.10	1.85	1.30

<표 2>에 의하면 동일색상-대조색조 배색에서 A그룹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짙은 색을 위에 배색한 것으로 1:1.618의 황금비례로 배색한 경우 가장 조화롭게 느꼈으며 다음이 1:2비례로 나타났다. B 그룹은 옅은 색을 위에 배색한 것으로 1:2 비례를 가장 조화롭게 느꼈으며 다음으로 1:1.618 비례로 나타났다. 동일색상-유사색조 배색에서 A그룹은 1:2 비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618 비례의 순이었다. B 그룹에서는 1:1.618, 1:2 비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에 의하면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색조는 서로 반대가 되거나 유사하게 배색한 경우 1:5의 대조비례가 가장 조화롭지 못한 배색으로 나타나 색면의 길이 차이가 너무 많은 경우 조화롭지 않은 것으로 느꼈다.

2. 유사색상 배색과 색면 길이의 비례

색상과 색조의 차이가 크지 않은 유사한 색끼리 배색하는 방법으로 <표 3>은 조사에 사용된

<표 3> 유사색상 배색 색채샘플

			비례					
			1:1	1:2	1:1.618	1:3	1:5	
유사 색상	대조 색조	R(p2):4R 8.0/5.5 RO(dp4):10R 4.0/11.0	A					
			B					
	유사 색조	G(p12):3G 8.0/3.0 BG(lt14):BG 7.0/6.0	A					
			B					

<표 4> 유사색상-색조의 색면 길이의 비례에 따른 배색에 대한 조화

(N=143)

			비례									
			1:1		1:2		1:1.618		1:3		1:5	
색상	색조		M	SD	M	SD	M	SD	M	SD	M	SD
유사 색상	대조 색조	A	3.20	1.58	3.52	1.06	3.71	1.11	2.92	1.19	1.66	1.08
		B	2.66	1.49	3.90	1.04	3.17	1.13	3.11	1.30	2.14	1.45
	유사 색조	A	2.73	1.43	3.76	1.14	3.73	1.07	2.97	1.15	1.81	1.26
		B	2.56	1.46	3.61	1.11	3.49	1.28	3.22	1.21	2.10	1.40

색채샘플이며 조사결과는 <표 4>와 같다. 유사 색상-대조색조 배색 A그룹에서는 1:1.618 비례가 가장 조화롭게 느꼈으며 B그룹에서는 1:2 비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색상환에서 인접한 색상끼리 배색하는 경우 대조색조 배색은 1:2 또는 1:1.618의 색면 길이의 비례로 배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색상-유사색조 배색은 1:2비례와 1:1.618비례가 조화로운 것으로 나타났고 1:1 비례는 대조색조배색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사색상-유사색조 배색은 색상 차가 작아서 배색효과가 애매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조색조, 유사색조 모두 B그룹에서는 1:5 대조비례가 동일색상배색의 결과보다 조화로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사색상배색에서 색상 차가 적으므로 어두운 색조를 아래에 배색했을 때 좀 더 배색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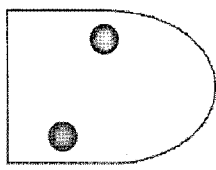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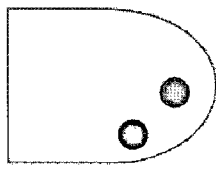










3. 반대색상 배색과 색면 길이의 비례

색상은 반대 색상으로 구성하고 유사색조와

반대색조로 정리하여 배색한 방법으로 <표 5>는 조사에 사용한 색채샘플이며 조사결과는 <표 6>과 같다. 반대색상-대조색조 배색은 A그룹의 경우 1:1.618의 비례를 가장 조화롭게 느꼈으며 다음이 1:2 비례였다.

B그룹은 1:2비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618 비례 순이었다. 반대색상-유사색조 배색의 경우 A, B그룹 모두 1:2 비례를 가장 조화롭게 느꼈으며 다음으로 1:1.618 이었다. 1:3비례에서는 대조색조와 유사색조 모두 B그룹이 동일 색상이나 유사색상 배색보다 좀 더 조화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대색상 배색의 경우 1:5 비례의 경우 동일색상배색, 유사색상 배색보다 조화로운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색상은 반대 색상으로 구성하고색조는 대조색조로 배색하였을 경우 색의 속성상 서로 반대되는 색으로 이루어진 배색이기 때문에 안정감, 통일성 보다는 변화감과 역동성이 두드러져 눈에 띄는 배색이 되기 쉬우며, 이는 반대색상의 경우 두 가지 색의 색상차이가 크므로 색면의 길이 차이를 많이 두었을 때 보다 재미있고 강조의 효과를 얻을 수

<표 5> 반대색상 배색 색채샘플

				비례				
				1:1	1:2	1:1.618	1:3	1:5
반대 색상	대조 색조	G(b12):3G 6.5/9.0 RP(dk24):6RP 2.5/5.5 	A					
			B					
	유사 색조	Y(v8):5Y 8.0/13.0 V(dp20):9PB 2.5/9.5 	A					
			B					

<표 6> 반대색상-색조의 색면 길이의 비례에 따른 배색에 대한 조화

(N=143)

		비례										
		1:1		1:2		1:1.618		1:3		1:5		
색상	색조	M	SD	M	SD	M	SD	M	SD	M	SD	
반대 색상	대조 색조	A	2.89	1.57	3.52	1.06	3.73	1.18	2.98	1.19	1.87	1.28
		B	2.71	1.47	3.65	1.04	3.28	1.20	3.15	1.29	2.20	1.54
	유사 색조	A	2.78	1.42	3.66	1.14	3.57	1.24	2.95	1.19	2.04	1.43
		B	2.42	1.33	3.83	1.11	3.26	1.21	3.30	1.28	2.20	1.50

<표 7> 배색방법과 색면 길이의 비례

(N=143)

배색방법		검정 값 = 3											
		비례		1:1		1:2		1:1.618		1:3		1:5	
		M	t-value	M	t-value	M	t-value	M	t-value	M	t-value		
동일 색상	대조색조	2.73	-3.022	3.74	11.945	3.73	9.394	2.89	-1.453	1.90	-12.790		
	유사색조	2.98	-.277	3.82	6.909	3.88	12.370	2.60	-5.445	1.80	-15.322		
유사 색상	대조색조	2.93	-.685	3.71	10.641	3.44	5.926	3.01	.169	1.89	-12.933		
	유사색조	2.65	-3.777	3.69	9.538	3.61	8.320	3.09	1.316	1.96	-11.784		
반대 색상	대조색조	2.80	-1.934	3.74	8.791	3.50	7.078	3.06	.789	2.04	-10.128		
	유사색조	2.60	-4.213	3.59	11.448	3.41	5.287	3.13	1.572	2.12	-8.363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4. 색면 길이의 비례와 배색방법의 관련성

<표 7>은 색면 길이의 비례와 배색방법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일변량 검정을 한 결과이다. 검정 값은 3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5점에서 1점까지의 합을 평균한 값이다. 이를 살펴보면 모든 배색에서 1:5 비례는 전체적으로 가장 조화롭지 못한 배색으로 보았으며 다음으로 1:1 비례가 조화롭지 않은 배색으로 나타났다. 이는 색면 길이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유사한 경우 부조화하거나 흥미롭지 못한 배색효과가 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모든 배색에서 1:1.618 비례와 1:2비례는 조화로운 색면 길이의 비례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비례에서는 동일 색상배색이 조화롭지 않았으며 1:5비례에서는 다른 배색보다는 반대색상 배색에 대하여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복식디자인에서 기본 배색된 색채는 형태에 따른 면적의 비례를 고려해야 한다. 인체를 허리를 중심으로 상하개념으로 생각하였을 때 두 가지 색상 배색의 경우 색면의 길이가 주는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색면 길이에 따라 인체를 강조할 수 있고 결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디자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복식디자인에서는 색상배색과 함께 색조를 고려하여 통일감과 색채효과를 생각해야 하며 이들 색조와 명도의 차이는 색면 비율의 요소를 강조한다.

본 논문의 결과 색면 길이의 비례에 따른 색상과 색조 배색의 조화로운 배색방법보다는 색면 길이의 비례가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배색에서 황금비례인 1:1.618 비례와 협화음 비례인 1:2비례 배색이 가장 조화롭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배색에서 느끼는 조화로운 것은 개인의 차가 크고 색을 보는 사람마다 그 색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연상 작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화의 느낌을 평균하여 어떤 법칙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만, 색면 길이의 비례가 만들어내는 배색의 효과를 복식디자인과 의복작용에 활용한다면 의복의 색채를 강화시켜 주거나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2색 배색뿐만 아니라 3색 배색 및 단색상과 색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 길이의 비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배색과 비례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알아봄으로써 패션디자인의 조화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을한, 김동욱 (1996). *디자인을 위한 색채*. 서울: 미진사, p.82.
- 2) 박영순, 이현주 (1998). *색채와 디자인*. 서울: 교문사, p.60.
- 3) 조주현 (2005). 패션색채의 활용에 있어서 색차에 의한 이미지 배색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0.
- 4) 한국색채학회 (2002). *컬러리스트*. 서울: 도서출판 국제, pp.73-74.
- 5) 추선형 (1996). 복식디자인을 위한 녹색의 배색계획.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21.
- 6) I.R.I. 색채연구소 (2004). *Color Training*. 서울: YoungJin.com., pp.81-91.
- 7) 板倉 卽. 이현숙 옮김 (1989). *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pp.51-52.
- 8) 이민정, 김혜연 (2004). 자연색채계(Natural Color system)와 비렌(Birren Faber)의 조화론을 적용한 색채연구- 2001 S/S - 2003 F/W 밀라노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지* 16(3), pp.61-69.
- 9) 양지영, 김영인 (2005).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보색배색의 색채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9(2), pp.49-56.
- 10) Marian L.Davis. 손화연외 옮김 (1990). *복식의 시각디자인*. 서울: 경춘사, pp.201-205.
- 11) 박은주 (1991).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pp.278-279.
- 12) 이해숙, 김재숙 (1998(a)). 복식의 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2(5), pp.597-606.
- 13) 문영애 (1999). 재즈이미지에 의해 형성된 공감각적 색채와 비례에 의한 복식조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2.
- 14) 유송옥 (1992). *복식의장학*. 서울: 수학사, p.216.
- 15) 김순자, 유화숙, 이미영, 전은경 (2005). *의복의 이해*. 서울: 교문사, p.154.
- 16) 柳 亮. 유길준 옮김(1982). *황금분할*. 서울: 지문당, pp.70-73.
- 17) Sharon Lee Tate, 김문숙역 (1987). *Inside Fashion Design 복식디자인의 이론과 실제*. 서울: 경춘사, pp.200-206.
- 18) 윤희철 (1986) 건축과 음악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양건축과 음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 19) 이대암 (1993). *우주적 기호로서의 건축비례*. 서울: 공간 6권, pp.24-29.
- 20) 文化服裝學園 (1997). *디자인*. 文化出版國, pp.62-63.